

'정보리밭 사잇길 걸으며 추억 충전'

5월 4일부터 7일까지 군산콩당보리축제... 체험·공연·놀이마당 등 프로그램 다채

대한민국의 맥류산업을 선도하는 군산농업인의 자존감을 살리고 도농화합을 견인하고자 추진되는 제13회 군산콩당보리축제가 오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미성동 서부체육공원부지 축제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에는 부모세대가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고 체험할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마당, 공연마당, 놀이마당 등의 프로그램과 어린이와 젊은 세대들을 위한 어린이 쉼터, 만들기 체험, 꾸미기 체험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방문객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리밭을 거닐 수 있는 산책길과 쉼터는 물론 아름다운 작풍과 전시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마당 등 6개 부문 55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아울러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해 '행운을 잡아라', '보물을 찾아라', '추억

의 상품을 남겨라' 등 풍성한 사은행사도 실시해 축제의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군산콩당보리축제위원회 관계자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군산콩당보리축제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시민과 지역 농업인들이 하나 되는 농업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안창호 소장은 "그동안 축제행사 진행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콩당보리축제는 지리적 표시 제49호로 등록된 군산원찰쌀보



제13회 군산콩당보리축제가 오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미성동 서부체육공원부지 축제장에서 펼쳐진다.

리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미성농재 군산시 대표 농업축제로 자리매입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2006년 축제를 처음 개최한 이후, 현

군산시장 예비후보 선거행보

문택규 군산시장 예비후보

"공약의 50%, 시민 아이디어로 채우겠다"

문택규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시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정책제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위기로 인해 시민들의 정서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휴대폰 홍보메시지에 답장하는 방식으로 시민생활 주변에서 느낀 희망의 아이디어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번 시장선거에서 제가 내세운 공약은 50%만 채택하고, 나머지 50%는 시민 아이디어로 채우기로 했다"면서 정책제안에 참여해주시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당선 후 매월 1회씩 운영 예정인 시민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 선거인민군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도록 저 자선부회 출신수범 하겠다고 다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경제공황 이겨낼 7대 정책 발표

6월 13일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산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한 강임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특보가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심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6일 군산시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군산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고스톱과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어쩌면 이 위기가 끝이 아니고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공황을 이겨낼 '군산뉴딜 7대 정책'으로 ▲군산 GM 공장

을 국내 최대의 전기차 공장으로서 부활 ▲7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일자리 1만개 창출 ▲군산대 외대 설립을 추진해 1000명 이상의 학생 고용인력 창출 ▲2000억원 이상의 지역 화폐 전면유통을 통한 경제 활력 ▲매년 1000만원 지원 하는 1000명 청년 창업 ▲매년 100억원 이상 골목상권 직접 지원 정책 ▲구도심에 공공임대주택과 결합한 거점별·기능별 대규모 도시재생 추진을 내놨다.

이어 "한국메니페스트가 주관하고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평가 및 조사단을 구성해 시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 제안을 받아 이를 수용하는 투명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홍보 총력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

2018년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2018년 2월 22일 발표되었으나 시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농가에 우편물 발송 SMS 발송 등 지속적으로 운영 지침을 안내하고 있으나 환경부서에 접수되는 건수가 미미하다고 한다.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2018년 3월 24일로 가축분뇨법상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대규모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제한커리규역 내 농가 대상으

로 적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는 3월 24일까지 익산시 녹색환경과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해야만 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민약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한 농가는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익산시는 제출

된 적법화 계획서를 평가한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부여된 이행기간동안 적법화를 진행하면 되며 된다.

주요한 점은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익산시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익산시는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농가가 녹색환경과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을 하여 기간유예를 받아 적법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익산=정영원기자

군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행

군산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3200만원으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은 군산시에 주소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의식향상 교육사업, 가족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희망자는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갖춰 군산시 가족청소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은 4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최순금 가족청소년과장은 "군산시 양성평등 정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잠시한 사업을 발굴해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

익산시는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2차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가 6일 시청 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경관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1월 1차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경관관리를 위한 권역별 실행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표준디자

인(안) 등의 구체적인 경관·공공디자인 관리방안이 제시됐다.

중심시가지권역, 고도백제역사권역, 도농소도읍권역, 금강백제휴양권역, 금강광야권역, 만경강평야권역 등 중점경관관리권역의 경관계획과 경관지구별 경관가이드라인 등이 재정비되고, 실행계획으로는 전라선과 용동역을 활용한 경관사업, 인접한 원광대

대학로 조성사업 등 다양한 경관사업이 제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계획의 재정비 통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경관 관리 및 공공디자인 진흥 방안을 마련해 익산시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영원기자

군산시, 주택피해 시민 위한 긴급 주거시설 운영

군산시가 3월부터 화재, 침수 등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임시 거주지를 무상 제공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 주거시설을 운영한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임대주택 2호를 임차해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복귀기간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 긴급 주거시설에는 냉장고, 세탁기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모두 완비되

어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만 실비로 부담하면 된다.

입주 대상은 화재, 침수 등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돼 긴급하게 거주자가 필요한 군산시민으로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긴급 주거시설 입주를 원하는 시민은 주택행정과(☎54-4243)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판곤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을 꾸는 곳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

이웃사랑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